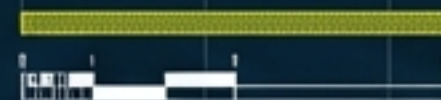


EBS/수능 국어 독서 지문 및 문항 심층 분석



CONTENT: 지문 논리 구조 해체 및 문항 28-30번 정밀 해설

법의 건축학: 왜 칸트의 시스템은 모순을 안고 있는가?

☙ 법은 단순히 '기록된 윤리'가 아닙니다. 칸트는 법과 윤리를 철저히 분리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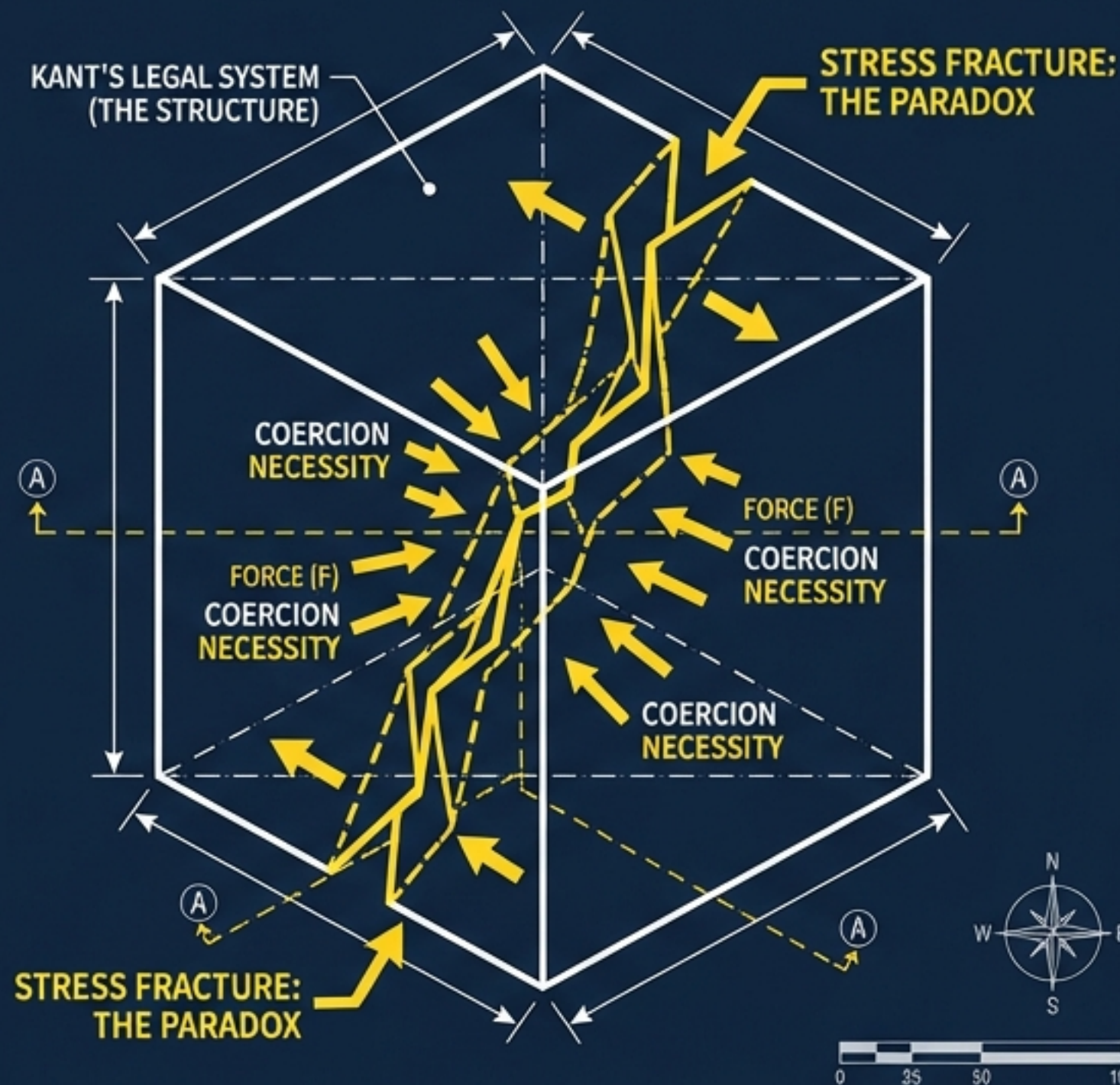
⚙️ 본 분석은 칸트 법철학의 3대 명제(The Three Pillars)를 통해 법의 구조를 세우고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균열(The Paradox)을 추적합니다.

❓ **핵심 질문:**
왜 칸트는 '명령할 수 없는 명령'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감수하면서까지 '외면성'을 고수했는가?

☙ **적용:** 이 논리적 틀을 사용하여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지문의 28, 29, 30번 문항을 완벽하게 해체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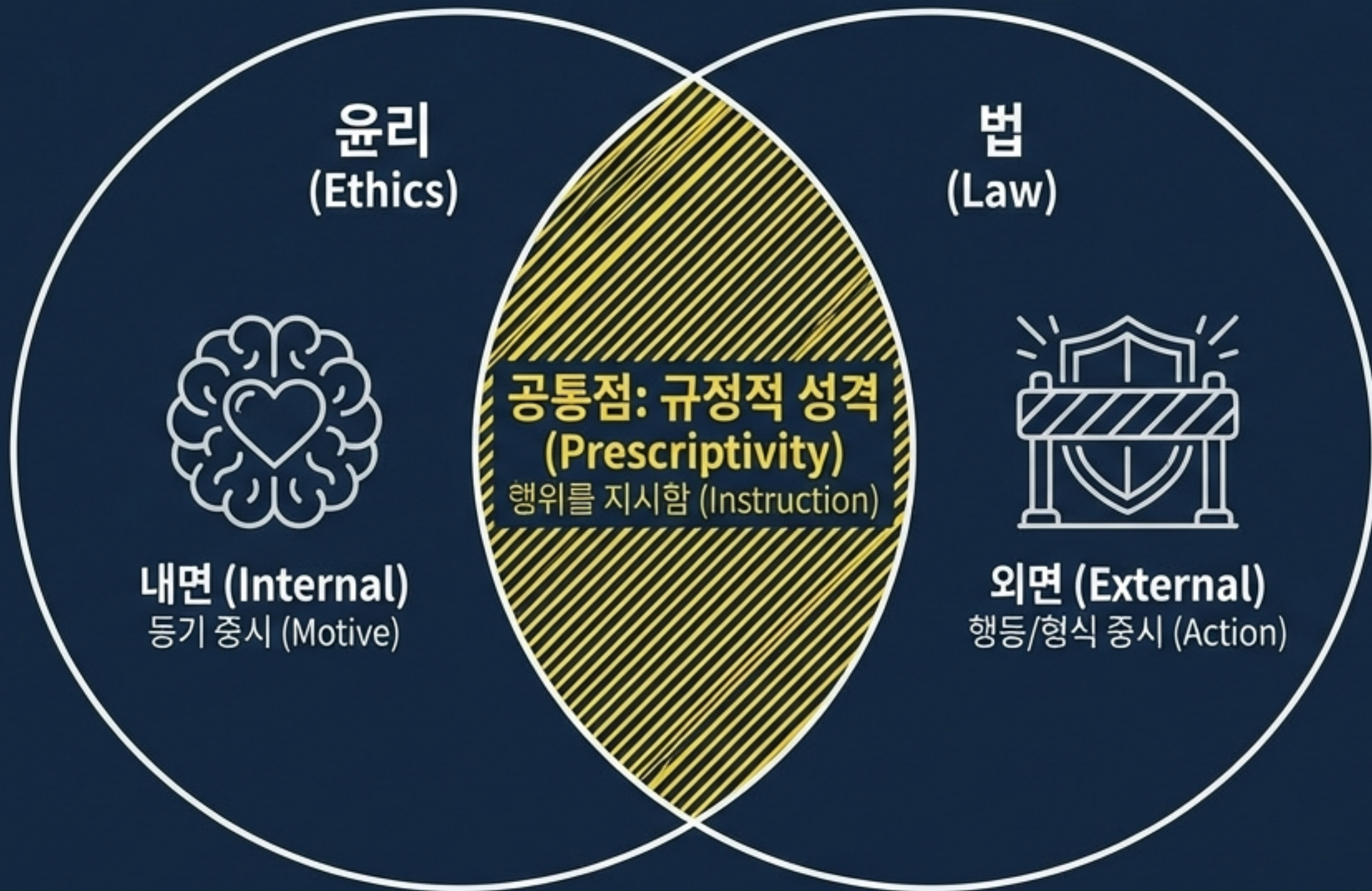
STRUCTURE OF KANT'S LAW & THE PARADOX



PROJECT: KANTIAN LAW ANALYSIS	
DRAWING NO:	DRAWING NO:
DATE: OCT 28, 2023	A-101
ARCHITECT: AI DESIGN SYSTEMS	



ETHICS VS. LAW: THE INTERSECTING FOUNDATIONS (KANT'S FRAMEWORK)



둘 다 '무엇을 하라'고 시키지만, 법은 '마음'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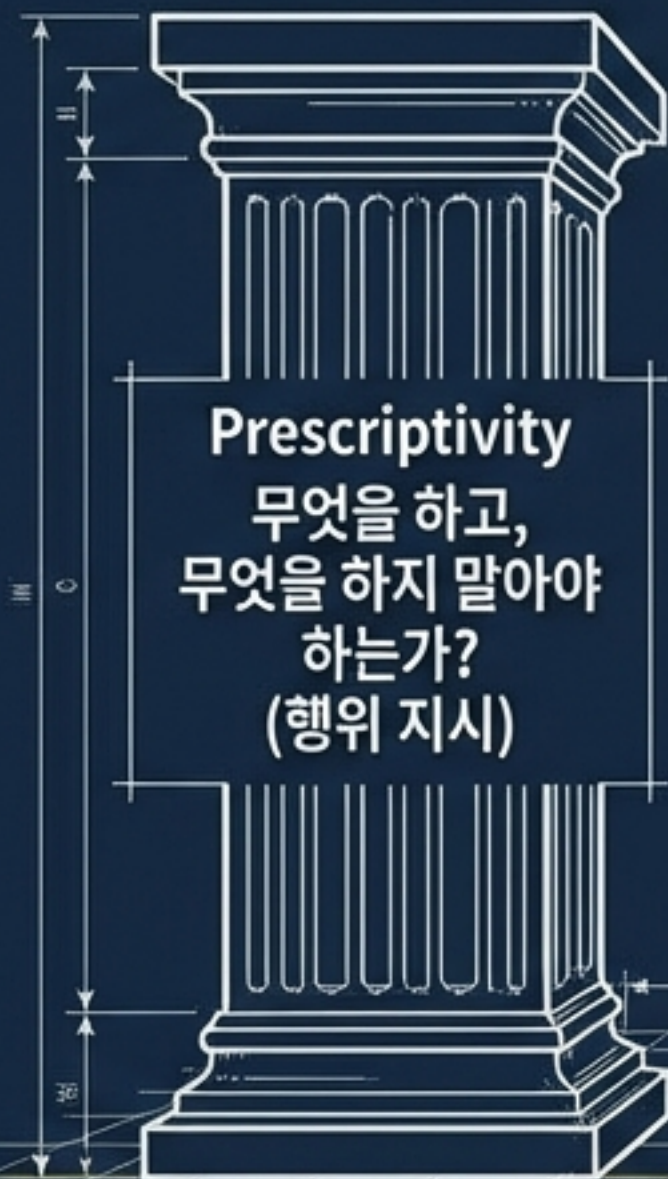
0 33 50 100

PROJECT: NANTIAN LAW ANALYSIS	
DRAWING NO:	DRAWING NO:
DATE: OCT 28, 2023	A-102
ARCHITECT: AI DESIGN SYSTEMS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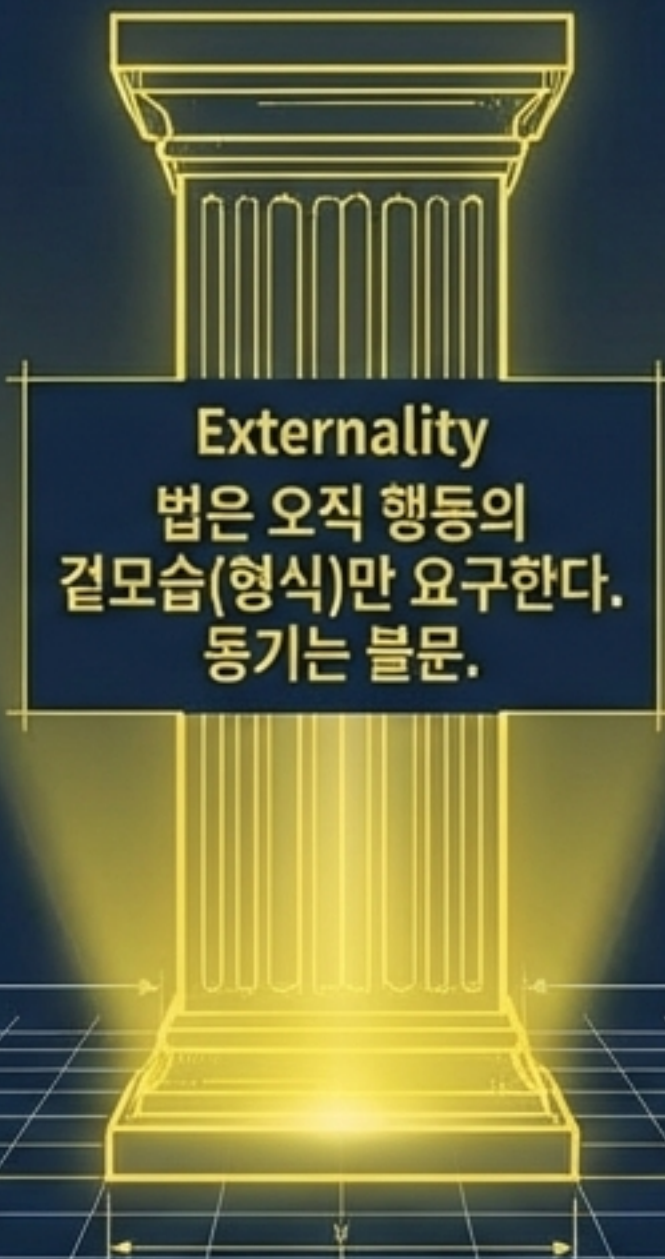


칸트 법철학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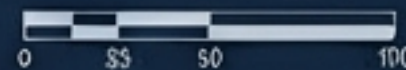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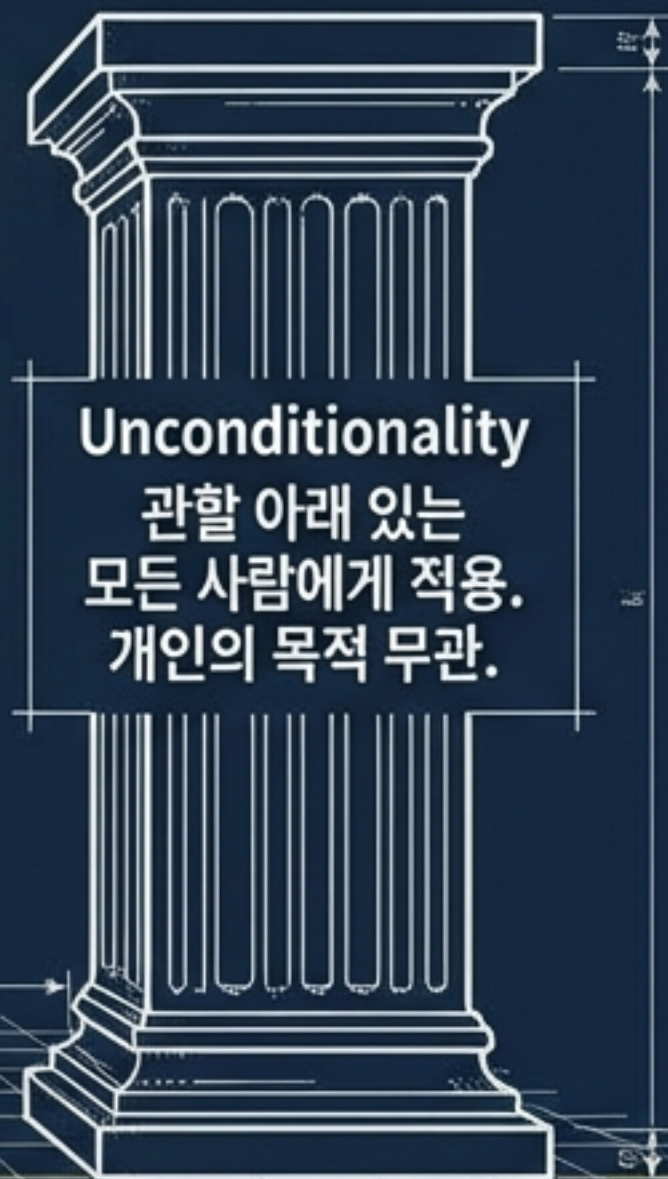
1. 규정성 명제



2. 외면성 명제 [핵심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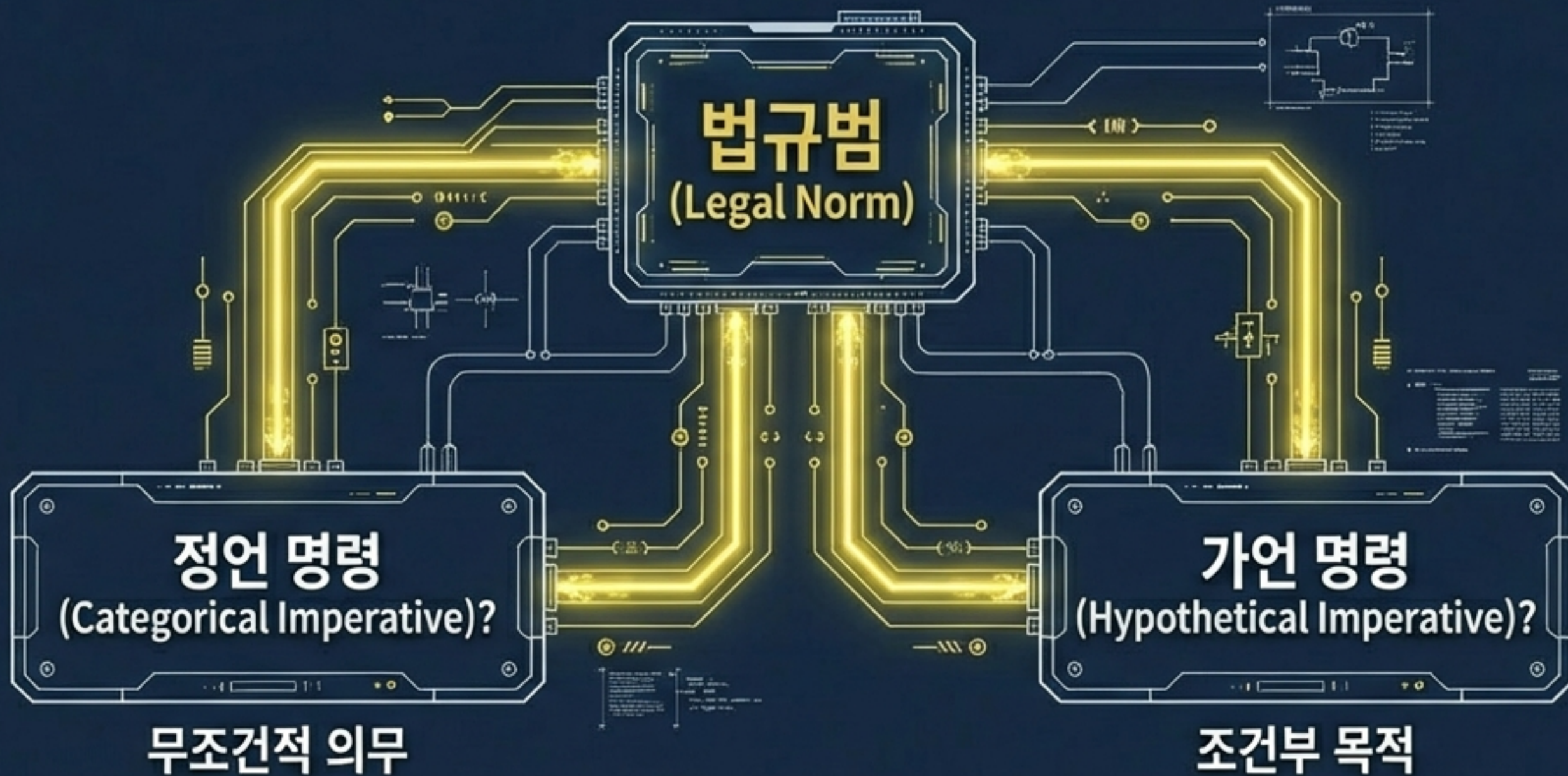
3. 무조건성 명제



PROJECT: NANTIM LAW ANALYSIS	
DRAWING NO:	DRAWING NO:
DATE: OCT 28, 2025	A-103
© 2025 AI DESIGN SYSTEMS	



딜레마의 시작: 법은 어떤 명령인가?



법규범은 규정성(지시)을 가지므로 명령의 형식을 띠어야 합니다.
칸트의 체계에서 명령은 정언 명령 아니면 가언 명령뿐입니다. 과연 법은 어디에 속할까요?



0 50 100

PROJECT: NANTIM LAW ANALYSIS	
DRAWING NO:	DRAWING NO:
DATE: OCT 28, 2025	A-103
OCCUPANT: AI DESIGN SYSTEMS	



막다른 길 1: 정언 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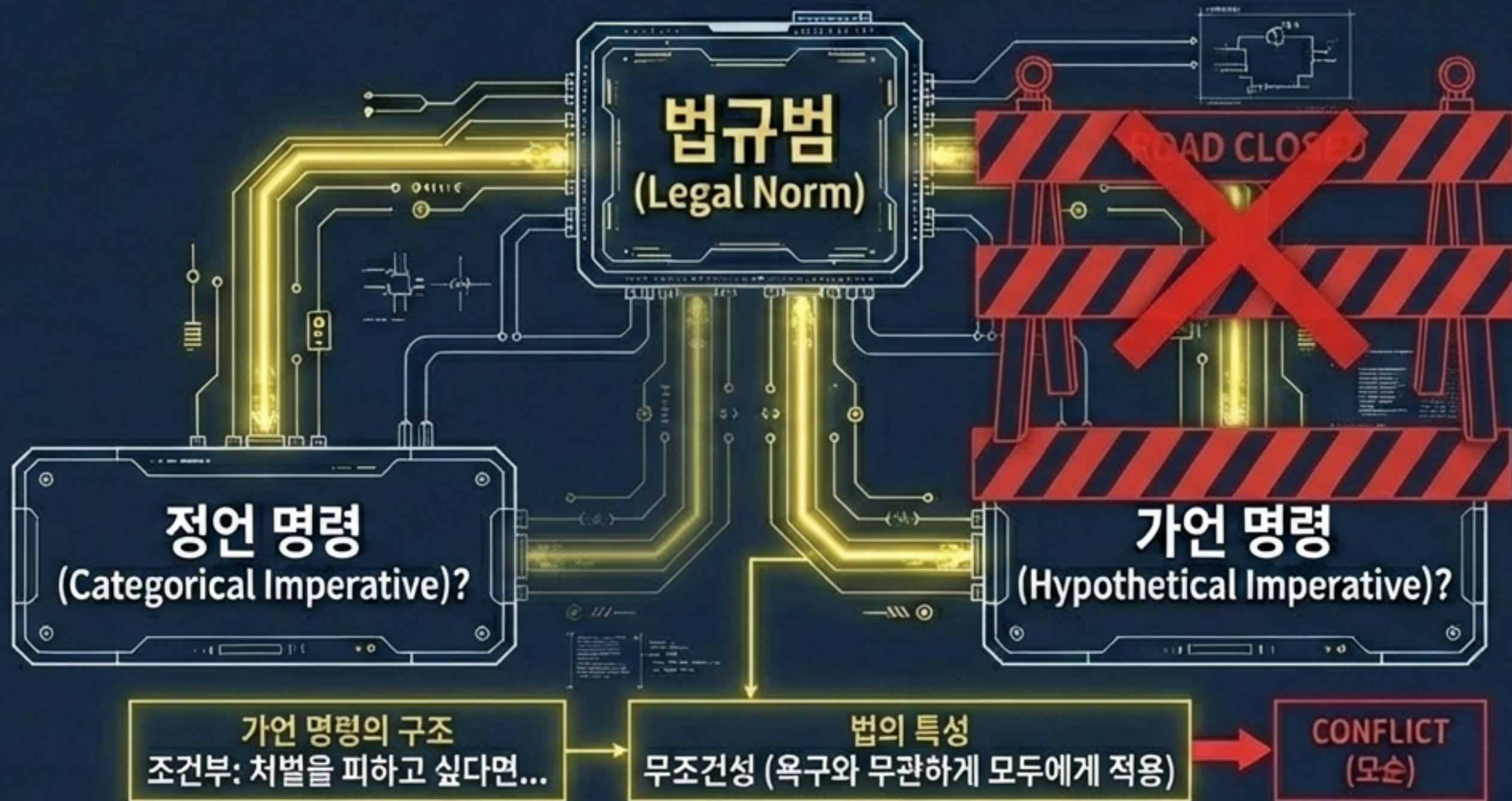
0 25 50 100

외면성 명제가 성립하는 한, 법은 정언 명령일 수 없다.

PROJECT: NAVTIMI LAW ANALYSIS	
ORAMWS NO:	ORAMRO NO:
DATE: OCT 26, 2025	A-103
OBJECT: AI U2SION SFSTMS	



막다른 길 2: 가언 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



무조건성 명제가 성립하는 한, 법은 조건부인 가언 명령일 수 없다.



0 50 100

PPA/ET.T. NANTIMI LAW ANALYSIS	
0A/MWS VO:	ORAMRO MOI
DATE RCT 26, 2025	A-103
0008TECT AI I12SION SFSTEMS	



법적 명령의 역설 (The Legal Paradox)

A와 B를 유지하면
→ C(명령 형식)가 불가능

A: 외면성
(Externality)

?

B: 무조건성
(Unconditionality)

C: 규정성
(Prescriptivity/Command)

정언 명령(동기 필요) X

가언 명령(조건부) 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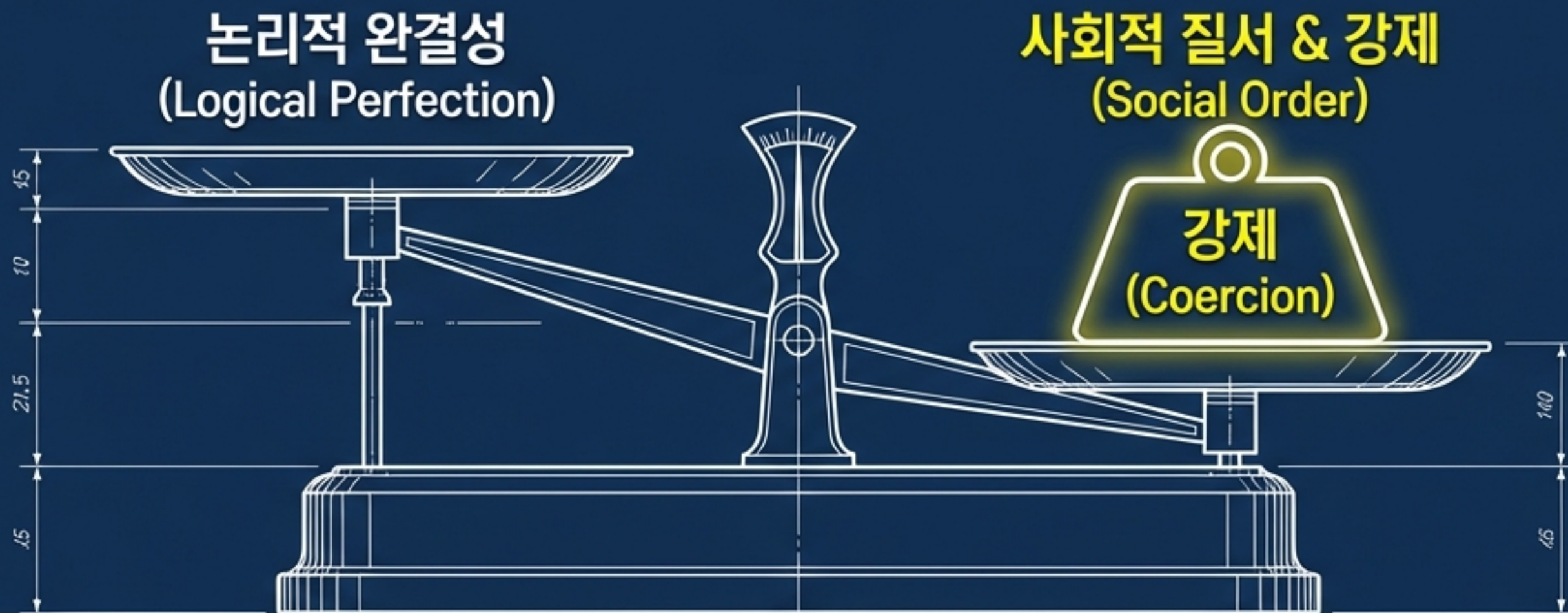
논리적으로 법규범은 명령으로서의 성격(규정성)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다.



0 5 10 15

PPA/ET: MARITIME LAW ANALYSIS	
DA/MWE VO:	ORL/MIRU VO:1
DATE RCT 28, 2025	A-103
00057007 AI I12SION SFSTMS	

왜 칸트는 **역설**을 감수하는가?



칸트가 외면성 명제를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**‘강제(Coercion)’** 가능성 때문입니다.
내면(동기)은 남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. 오직 **외면(행동)**만이 타인에 의해 강제될 수 있습니다.
 법이 사회 질서를 위해 강제력을 가지려면, 역설적이게도 **내면을 포기하고 외면성에 집중**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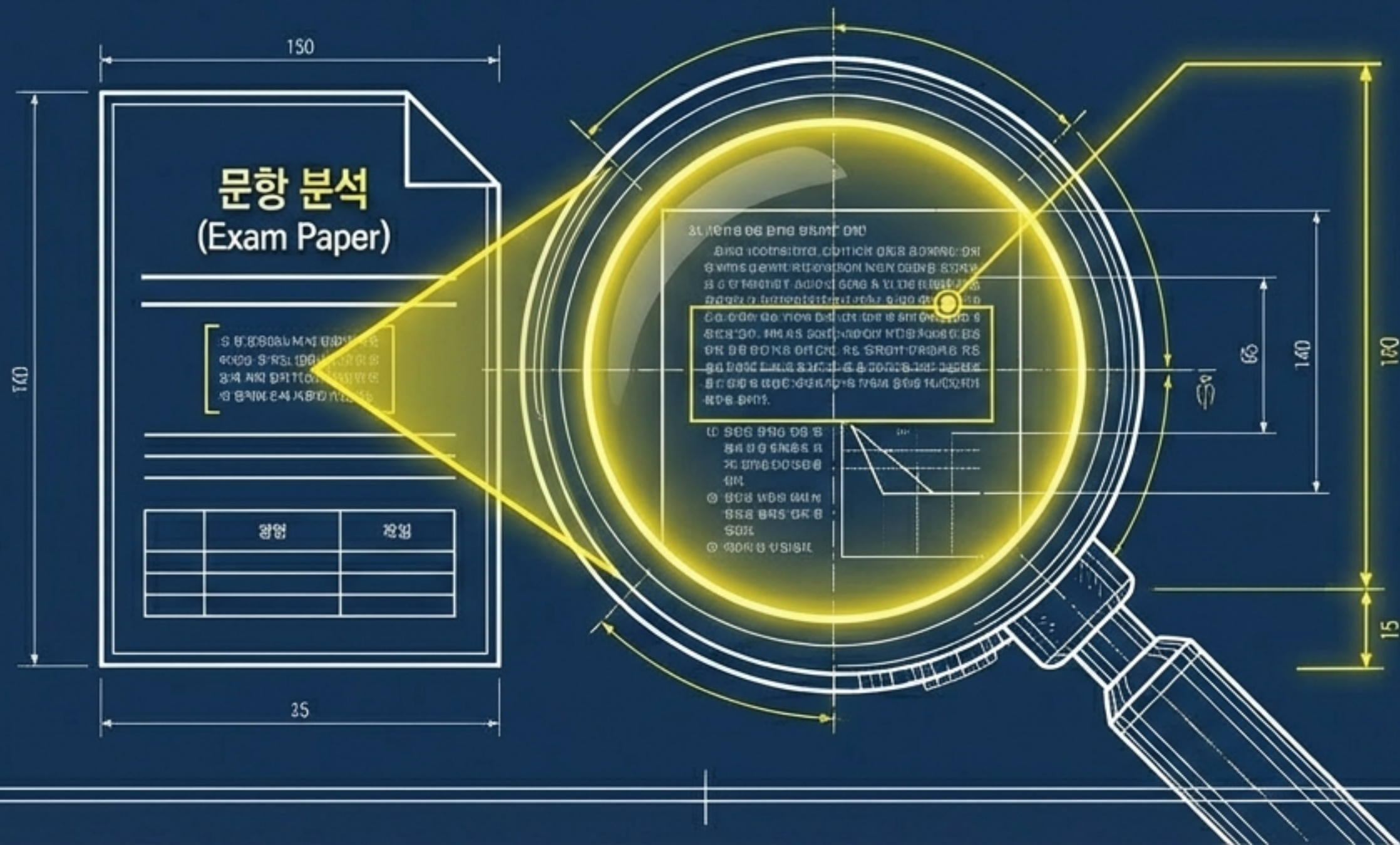
자율성과 타율성: 강제의 두 가지 얼굴

	구분	윤리 (Ethics)	법 (Law)	
21.5	입법 주체	자율성 (Autonomy) (스스로 법칙 수립)	타율성 (Heteronomy) (외부에서 주어짐)	15
	강제 방식	자율적 강제 (Self-Coercion) '내가 나를 강제한다'	타율적 강제 (External Coercion) '남이 나를 강제한다'	140
	핵심	내면의 양심	외부의 처벌	65
15				15

Key Takeaway: 윤리에도 강제는 있습니다. 법과 윤리의 차이는 강제의 '유무'가 아니라 강제의 '출처(Source)'입니다.

지문 논리 적용: 문항 28, 29, 30번 해체

앞서 구축한 논리적 청사진(Blueprint)을 통해 수능 지문의 함정을 파헤칩니다.



문항 28번 분석: 강제의 유무 vs 강제의 방식

The Trap (선지 ⑤)



The Logic Correction



오류의 원인: 많은 학생들이 '자율성 = 자유 = 강제 없음'으로 오해합니다.
윤리는 '나 자신'이 강제의 주체가 되는 것일 뿐, 강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.

문항 28번 심화: 딜레마의 확인 (선지 ③, ④)

선지 ③ 분석

외면성 + 규정성 유지 → 가언 명령화(조건부) → [무조건성 위배]



선지 ④ 분석

외면성 + 무조건성 유지 → 명령 형식 불가 → [규정성 위배]



이 선지들은 칸트의 법적 명령의 역설(Trilemma)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고난도 논리 검증입니다.

문항 29번 분석: 부합(Conformity)인가, 복종(Obedience)인가?

복종 (Obedience)

행동 + 도덕적 동기 (Reason)

윤리적 (Moralität)

부합 (Conformity)

행동 Only (No specific reason needed)

법적 (Legalität)

The Trap (선지 ③)

정언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를 아무 이유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.

Correction Text

부합은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. 우연히, 습관적으로,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도 결과적으로 규칙과 일치하면 '부합'입니다.

FALSE

문항 29번 심화: 동기의 다양성 (선지 ④)

처벌의 공포

이기적 이익

우연한 습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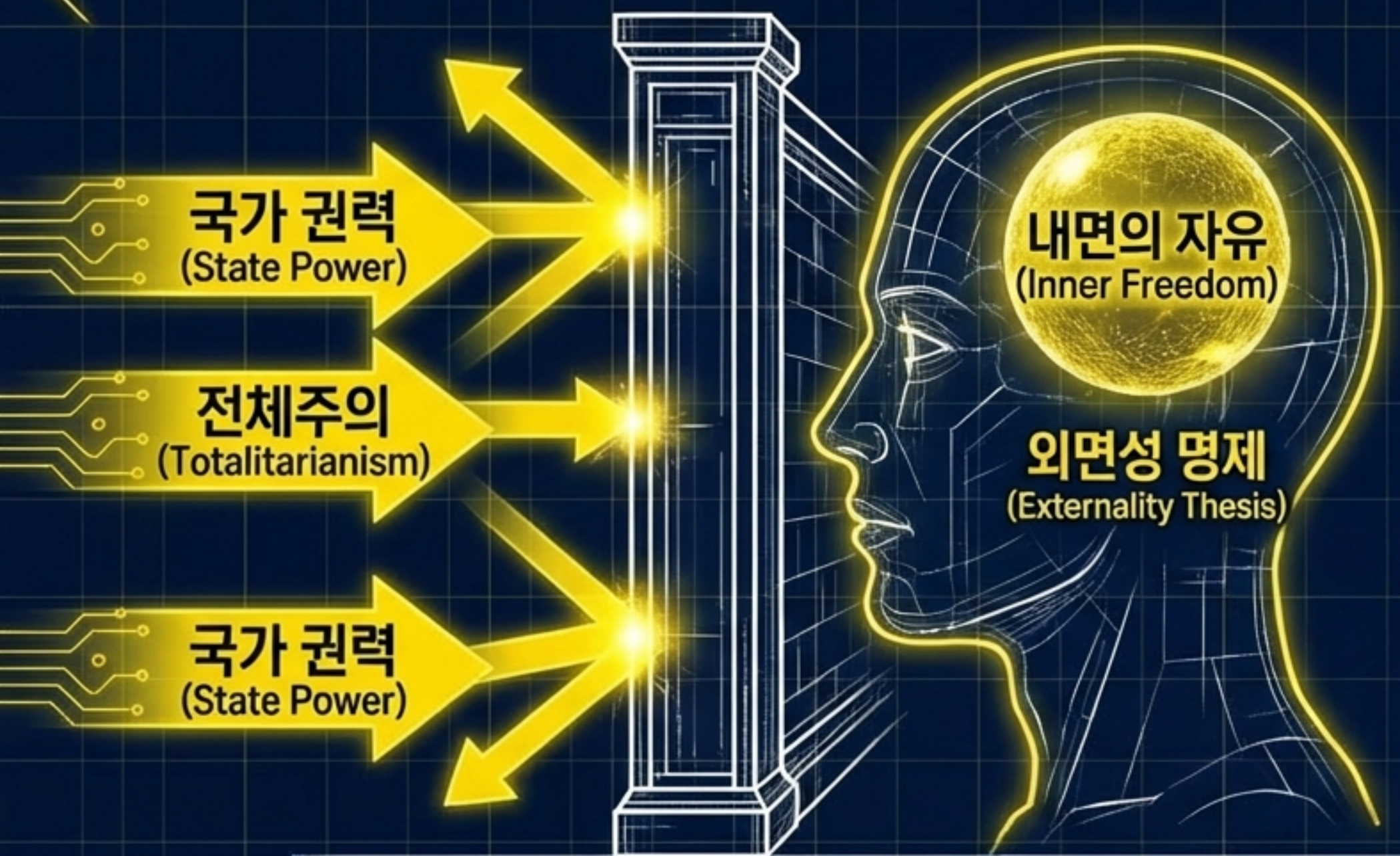
도덕적 의무감

법적 준수
(Legal Compliance)

결과적 행동 일치

법은 외면성(결과)만 따지므로, 그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.
비도덕적 동기라도 법규범 준수는 가능합니다.

문항 30번 분석: 외면성은 전체주의를 막는 방패



<보기>의 해석:

전체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신념과 양심까지 통제하려는 체제입니다. 칸트의 **외면성 명제**는 법이 내면을 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, 국가 권력의 **정당한 한계**를 **설정하는 방패**가 됩니다.

정답 ②: 국가 권력은 내면의 자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.

문항 30번 오답 분석: '착한 시민'의 함정

사람들이 법을 마음속으로
존경해야 좋은 사회 아닐까?
(선지 ④)

국가는 국민이 무슨 생각으로
법을 지키는지 알아야 해.
(선지 ⑤)

이는 도덕적 통념입니다.
칸트의 관점에서 국가는 시민의 심정적 지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.
내면의 지지를 강요하는 순간, 국가는 **전체주의로 변질됩니다.**

요약 및 정리 (Final Checklist)



3대 명제

법은 규정적(지시), 외면적(행동), 무조건적(보편)이다.



역설 (Paradox)

이 세 가지 특성 때문에 법은 논리적으로 정언 명령도, 가언 명령도 되기 어렵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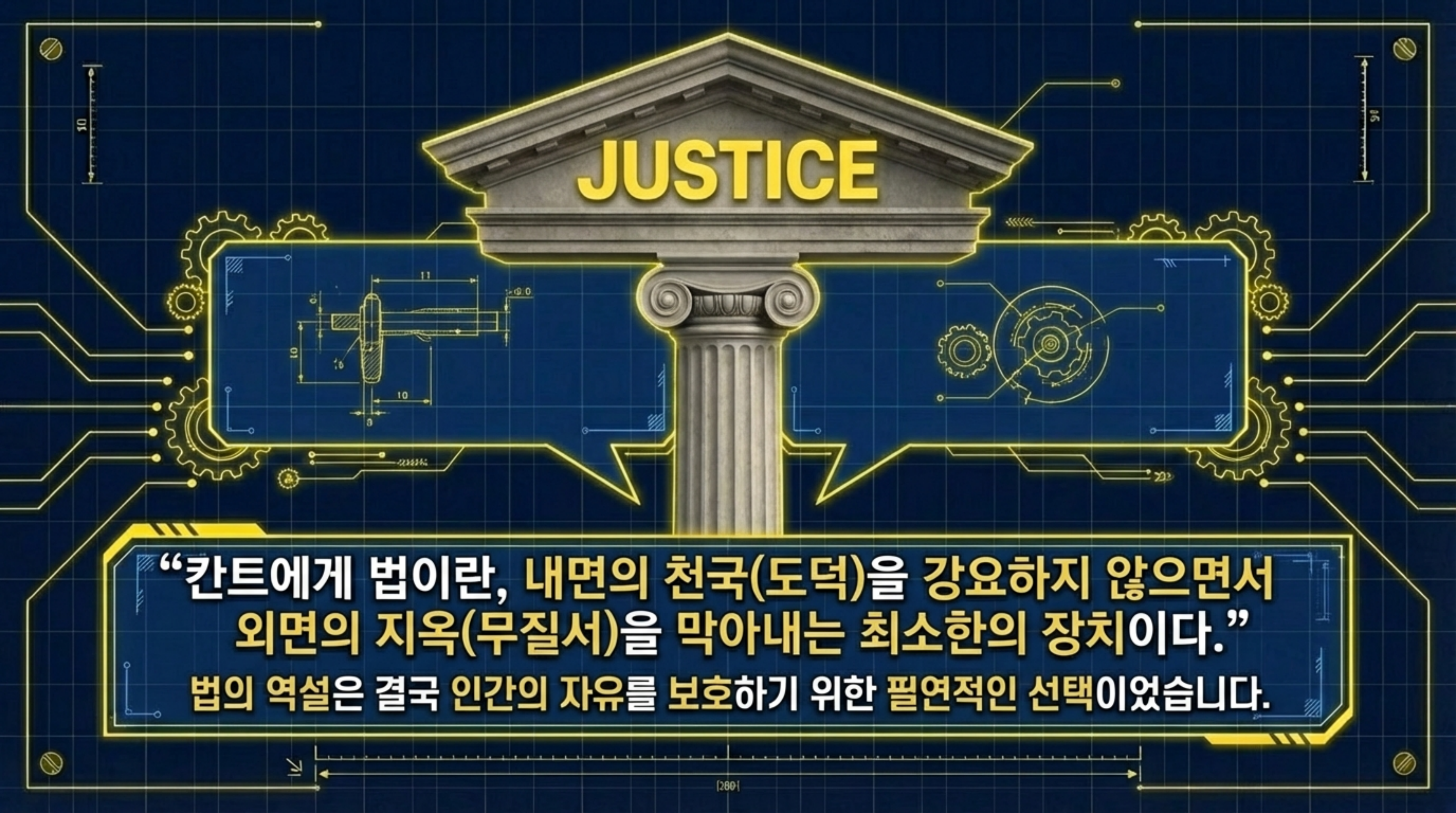
해결 (Resolution)

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'타율적 강제'를 확보하기 위해 외면성은 필수적이다.



실전 적용 (Application)

문제 풀이 시 '강제의 유무'가 아니라 '강제의 출처(내면/외면)'를 구분하라.



JUSTICE

**“칸트에게 법이란, 내면의 천국(도덕)을 강요하지 않으면서
외면의 지옥(무질서)을 막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이다.”
법의 역설은 결국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.**